

● 105회 총회 25시간 45분의 기록

# 코로나 이후 회의 문화 크게 변화, 차분한 분위기 속 마무리

## 산하기관들의 이사 선별수용 문제... 총회의 위상강화 과제 남겨

코로나 이후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축소된 교단 정기총회 일정은 교단의 회의 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다. 과거 새벽 1~2시를 훌쩍 넘겨 가며 진행되었던 회부순서와 막판과 고성이 오고가고, 특정인에 대한 발언대 독식 등의 역기능은 모두 사라지고 단축된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할 것은 다하는 총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다할 이슈와 큰 관심을 가질 만한 현장 개정이 없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새롭게 출범한 105회기를 희망의 찬 기대 속에서 바라보며 응원하는 대의원들의 뒷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회기를 기대해 본다.



대로 진행키로하였다.

심리부장이 발표한 대의원 자격심리 중 경남지방회와 경북지방회의 대의원 자격을 놓고 잠시 의견들이 엇갈렸으나, 참석 대의원 모두에게 대의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결의하고 개회가 선언되었다. 한 대의원의 총회 자료집 임원회의 및 심회위원회의 자료 중 위법한 사항이 있으니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잘못된 것도 역사의 기록이며 남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표결을 통해 그

6회째 시도되는 전자투표기를 통한 임원선거는 불과 30여 분만에 당락이 결정되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마무리되고 신규인원 교체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들에게 희망의 105회기를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 속개된 회부는 대부분의 보고가 자료집에 나오지 않은 대로 서면으로 보

고를 받았으며, 금곡, 유지재단 성결대학교가 기관장이 나서 직접 대변보고를 이어 나갔다.

이날 성결대학교 보고에서는 영암채플관 건립을 위해 교단 차원의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는 주문과 함께 학생인구의 감소로 학교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의 국

가에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홍보활동을 펴나가고 있으며, 2학기가 되면 총 1,36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수업을 받을 예정임을 보고하고, 신학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80%까지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며 타교 학생들의 반발도 있음을 함께 보고하였다.

지난 104회 총회석상에서 상정되어 1년간의 법제부 연구를 통해 상정된 현장개

정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현장 자체에 대한 개정안은 없고 3건의 산하기관 정관개정안이 논의되었다.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이 청원한 법인 명칭 변경의 건은 성결신학원을 성결대학교로 변경하자는 건으로 찬반을 통해 의견 수렴후 최종 기각기로 결의되었다. 은급재단과 유지재단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총회과송이사를 놓고 산하기관들이 선별적으로 수용하는데 대한 대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며 현장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사인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회과송 이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결의한다. 단 결격사유를 이사가 발견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그렇지 않을시 반대한 이사는 총회로 소환해서 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그대로 결의키로 하였다. 이렇게 105회 총회는 총회의 위상강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5월 19일 오후 03:45분 폐회했다.

**동정**

**총회장**  
이종만 목사

- 5. 20 영암기법관 신축공사 기공예배
- 23 목사안수식(성결대)
- 26 기성총회참석
- 28 105회기 첫 임원회의
- 31 생령수생교회 총회장 취임 및 임직감사예배
- 6. 1 여전도전국연합회 수련회
- 7 두곡교회 80주년 및 임직감사예배
- 8~11 실행위원회 정책수련회(일본)
- 15 한성연 정기총회
- 18 각 기관대표 및 기관장 연석 미팅

총회본부 ARS 대표번호  
**1600-0695**

## 총회장 이종만 목사를 비롯한 105회기 임원 선출

### 단독출마 후보들도 과반수 이상 지지 받으며 당선 확정

올해도 전자투표를 통해 진행된 임원선거는 이제 대의원들에게는 익숙한 분위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도입된 전자투표는 투개표 시간의 간소화와 번거로움을 일거에 해소하며 총회 선거문화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총회시 회의는 서면보고나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로 위임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시간을 간소화 할 수 있으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는 위임하거나 순서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선거를 진행해 왔었다. 이제 6차례의 전자투표기를 통한 선거를 치르며 교단 선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현장에 따라 단독후보한 104회기 부총회장 이종만 목사(생령수생)가 참석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105회기 총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부총회장 선거는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선으로 치러졌다. 기호1번 노윤식 목사(주남앞에제일)와 기호2번 이상문 목사(두란노)가 맞붙은 1차 투표에서 이상문 목사가 294표, 노윤식 목사가 266표를 각각 얻었다.

당선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긴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후 노윤식 목사가 유효를 결정함에 따라 이상문 목사가 최종 당선에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0회기 총회장을 지낸 이상문 목사는 지난해 부총회장 선거 낙선의 아픔을 딛고 재도전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치러진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

서는 황제돈 장로(신림제일)가 무난히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며 당선이 확정되었다.

부총회장 선거 만큼이나 관심이 쏠린 서기 선거에서는 기호1번 송영만 목사(빛과소금)와 기호2번 강명국 목사(늘사람)의 대결에서 강명국 목사가 당선에 영광을 안았다.

이밖에도 부서기 임태진 목사(영암), 회의록서기 김규식 목사(소망), 회계 박정식 장로(구로중앙), 부회계 김용빈 장로(신수동)가 각각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무난히 획득하며 당선이 확정되었다.

신임총회장 이종만 목사는 "한국교회와 신뢰를 잃은 이 유 중 하나는 성결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결한 삶으로 주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기독교인도 감동할 수 있는 건강한 기독교화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교회 사명이라 생각하고 성결한 성도를 키우고 본받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성결교회 선교 120 연차대회, 선교 120주년 맞아 새로운 이정표 제시

총회 첫째 날 저녁시간에 개최된 120 연차대회는 은혜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고양지방회 유세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대회는 박천영 목사의 힘찬 고동소리와 함께 총회장 이종만 목사를 필두로 신임임원들의 입장에 이어서 교단선교사들이 입장했다.

대의원들은 이들 선교사 임행을 기뻐해서 박수와 환호로 환영했다.

네너 국윤종 교수의 에루살렘을 비롯한 성가 2곡이 대회장 울리며 감동으로 몰아붙였다. 대회장 가득 배운 참석자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흔들며 함께 따라하는가 하면 격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교단 선교 120년을 기념하며 선교의 새로운 나침반을 제공할 선교비전 2030도 이날 발표되었다. 선교사회의 회장 김한주 선교사는 선교사들을 대표해 "먼저 우리는 2030년까지 선교사들 스스로가 변화할 것이다. 정직한 보고와 투명한 행정, 활발한 사역 소통을 할 것이며 두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선교사역의 계승 전략을 세워 실행할 것이며 셋째,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선교에도 함께 힘 쓰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교단이 선교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력 보강, 사역지원을 위한 선교비, 선교사 매칭펀드 등의 교단선교를 위한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열방으로 나갈 것입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국내지방회 선교사들은 1:1 결연을 맺고 지방회 차원에서 선교지 지원과 선교사 사역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선교사들도 자매결연을 맺은 해당 지방회의 활동과 국내선교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목사안수대상자 26명에 대한 축하의 순서가 진행됐다. 안수대상자들에게 은퇴예정목회자와 전 총회장들이 십자가 목걸이와 성경을 선물하며 축복하고 함께 안수기도하며 새롭게 탄생할 예비 목회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성결대학교 설립자인 영암 김용조 목사의 모습이 AI 기술로 재현돼 후배 목회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자랑스러운 성결인상 시상식과 특별공로상 시상도 있었다. 이병진 원로목사, 신용백 유우열 목사가 자랑스러운 성결인상을 수상했으며, 송재석 고희복 원로목사에게는 특별 공로상이 시상되었다.

## '함께 세우는 선교 · 지속 가능한 선교'

### 선교부, 선교 120주년 기념 2026 선교대회 개최



선교부부장 라건국 목사가 주회하고 해외 선교위원회(위원장 최상현 목사)가 주관하는 '교단 선교 120주년 기념 2026년 선교대회'가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화도 소재 라르고빌에서 개최됐다. 40여 명의 선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선교대회에서는 교단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방향성과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다시 성결, 다시 선교"를 주제로 함께 세우는 선교와 지속 가능한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며 선교사 위원회, 선교주일, 선교총회로 이어지며 교단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3일간의 packed 일정은 개회예배와 특강, 권역별 비전 소개, 정책토론, 토크콘서트, 부흥집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분

과별 정책토론에서는 선교사 관리와 행정, 멘비십 배서 발간, 선교사 선발과 재교육, 복지 및 은퇴, MK 사역 등 실제 선교 현장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교단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선교 비전 수립과 선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예성 선교비전 2030" 로드맵이 발표되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별 선교 전략이 제시됐다.

첫째 날 오후시간에 진행된 토크콘서는 최근 본지와 선교국이 공동조사한 설문결과를 가지고 재정, 은퇴, 사역전환, 행정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중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선교사들은 교단 선교국의 확대와 기본 재정의 마련을 주문했으며, 후원교회들과의 체계적인 다리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일간의 일정을 통해 참석자들은 2030년 교비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에는 교단 선교 현황 조사와 선교 전략회의 발족, 선교총회 기획 등을 통해 교단 선교의 방향성을 확립하기로 했다. 2027년에는 행정 일원화와 선교국 기능 강화, 사역 전략 매뉴얼 구축 등을 추진하고, 2028년

에는 운영 참여 확대와 복지·재교육 시스템 강화, 사역 네트워크 확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2029년에는 국제협력 자족 시스템 구축과 해외 사역 거점 형성, 다문화 사역 연계 등을 통해 장기적 선교 기반을 완성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교육·행정·사역·복지 등 각 분야별 핵심 아젠다도 함께 다뤄졌다. 정책 분야에서는 선교국 전문성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위기관리 체계 표준화 등을 논의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선교훈련원 운영 혁신과 차세대 리더 양성 방안을 모색했다. 행정 분야에서는 통합 선교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필드 중심 사역 전략을 다뤘으며, 사역 분야에서는 온라인 선교 플랫폼 개발과 BAM 모델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선교사 은급 및 긴급구조 체계 구축, 심리 케어 시스템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단 선교 1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교회와 선교사, 총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선교의 틀을 세우자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선교 120연차대회 및 제105회 총회**

**총회 임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회의록서기**

**김규식 목사**  
소망교회

**회장**  
부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회 회의록서기로 출마하신 김규식 목사님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국교회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인양중앙지방회**